

T V

TV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List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천안함 사태 논쟁 끝났나?

'추적60분' 어뢰추진체 흡착물질 최초공개

KBS 2TV '추적60분'은 17일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를 방송한다.

제작진은 15일 "천안함 사건의 민·군 합동조사단 보고서를 둘러싼 과학적 논란에 대해 취재하고, 특히 조사단이 천안함을 공격한 것으로 결론 내린 어뢰추진체에서 발견된 흡착물질을 입수,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성분 분석을 실시해 그 결과를 최초 공개한다"고 밝혔다.

합조단은 흡착물질이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라고 발표했다. 수중에서 폭발이 있었기 때문에 생성된 물질이라는 주장이다.



분석을 의뢰한 결과를 공개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은 천안함을 둘러싼 논란 중 하나인 침몰지점에 관한 의문을 짚어본다.

제작진은 "어뢰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는 국민은 10명 중 불과 3명으로, 대다수가 정부의 발표에 불신을 갖고 있다"며 "천안함 사건, 신뢰의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본다"고 말했다.

친환경 전기차 미래 추적

EBS '다큐10+' 17일부터 자동차 혁명 방영

21세기 들어 세계 자동차산업은 지각변동을 겪고 있다.

화석연료 고갈과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려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각광받는 한편 그동안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온 미국과 유럽 대신 중국과 인도가 저렴한 자동차를 앞세워 시장 공략에 나섰다.

EBS '다큐10+'는 17일부터 3주간 매주 수요일 밤 11시10분 방송하는 '자동차 혁명'을 통해 세계 자동차 산업의 변화를 추적한다.

1편 '전기자동차'에서는 친환경 차로 주목받는 전기자동차의 미래를 살펴본다. 전기차는 가솔린 엔진 자동차에 비해 부품의 수가 10% 정도에 불과하고 엔진에서 뜨거운 열이 발생하지 않아 차체를 강철로 만들 필요가 없다.

제작진은 미국과 중국, 일본의 사례를 통해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으로 자동차를 생산하던 시대가 저물고 소규모 업체들이 전기차 혁명을 이끄는 모습을 소개한다.

2편 '세계에서 가장 싼 자동차'에서는 인도 타타 모터스가 지난해 3월 공개한 세계 최저가 승용차 나노를 중심으로 인도 최대 제철 타타그룹과 매주 수요일 밤 11시10분 방송하는 '자동차 혁명'을 통해 세계 자동차 산업의 변화를 추적한다.

1편 '전기자동차'에서는 친환경 차로 주목받는 전기자동차의 미래를 살펴본다. 전기차는 가솔린 엔진 자동차에 비해 부품의 수가 10% 정도에 불과하고 엔진에서 뜨거운 열이 발생하지 않아 차체를 강철로 만들 필요가 없다.

3편 '전기자동차의 미래'는 미래의 자동차로 불리는 전기자동차의 개발에 기존 업계가 왜 소극적인지 파헤친다.

/연합뉴스

광일채 19회. Includes a Go board diagram and text about a match between 백 강창구 5단 and 흑 김기근 5단.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Daily fortune teller section with zodiac signs and horoscope details.

EBS Plus 1 and Plus 2 program listings. Includes times and program titles.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four columns: English (I'll take a Return Ticket), Japanese (造る原料が違いますね), Chinese (纹身 文身), and Korean (未然防(미연방)).